

지역 소식통

고창군, 스탬프투어 추진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간직한 고창군이 상반기 4~5월과 하반기 9~10월 온·오프라인으로 즐기는 스탬프투어를 추진한다.

스탬프투어는 관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동학(전봉준 장군 동상), 농악전수관, 운곡습지, 선운산, 탐사르갯발센터 총 7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은 플래이스터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어플을 설치하고 해당 관광지에 방문할 경우 진동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스탬프가 화면에 떠오르는 방식이다. 오프라인은 스탬프북에 지점마다 비치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온라인 미션 완료자 중 매일 20명을 추첨하여 마그네틱 5종, 스노우볼, 모로모로 인형 등을, 오프라인 미션 완료자 전원에게 배지 7종, 문구세트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스탬프 투어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며, 참여 방식과 완료 기념품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스탬프투어는 온라인(고창군청 관광산업과 063-560-2949), 오프라인(고창문화관광재단 070-4914-7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정기 소득조사 시행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4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 관리를 위해 정기 소득기준조사를 실시한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로,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원한다.

시는 2년마다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해 연라두절,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2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개최

부안군, 위촉장 수여·지역발전 위한 정책 제안 등

부안군은 2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2024년 부안비전 소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탐방, 내소사 국보 고려 동종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박운점 원광대학교 원예산업학과

교수가 부안 위도와 변산에 서식 중인 상사화를 테마로 화훼, 약초 등의 기능을 활용한 상사화 타운 조성 계획을 제시해 위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수소산업 육성·부안형 푸드플랜 구축·글로벌 휴양관광도시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구조, ESG 행정,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안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부안 대도약의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주민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공공요금·수수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을 위해 2019년 4월 대학교수, 연구원 등 각계계층의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출범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2024년 전북시민대학' 공모 선정

지역대학과 협업체계 구축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와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주관하는 '2024년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창군은 전주대, 원광보건대, 군장대와 협력해 △생성형 AI시대 브랜드

교육 △인공지능 시대 맞춤형 부모교육 △새로운 시대의 진로가이드 △100세 시대! 뇌가 좌우한다 △학습형일자리 천연염색 지도자 과정을 운영한다.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 제공과 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나선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도내 전역에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삶과 학습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학습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양질의 평생교육 과정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인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축산업 허가·등록자 대상 정기 점검

정읍시는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 거래상인'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산

위 면적 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 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동물용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축산과와 19개 읍·면·동 축

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축산업 경쟁력 높인다

조사료 생산 지원 103억원 투입

정읍시는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에 약 103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량을 늘려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시는 국비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운반 지원, 종자 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 등 생산기반 확대에 94억원, 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시책 예산으로는 사료 구입비 보조에 4억원이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 곡물 가격(옥수수 기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2년 7월에

는 1톤에 404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63달러로 인하되는 등 곡물 가격의 불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 이전인 2020년 곡물 평균 거래가격은 200달러였다.

특히, 올해 캐나다를 시작으로 2026년 미국, 2028년 호주 등의 관세가 차례대로 폐지될 예정이다. 관세가 폐지되면 조사료 수입량이 늘어나고, 국내 농가의 수입 조사료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는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더욱 확충해 해외 조사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희수 시장은 "FTA체결로 인한 수입 관세 철폐 등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률을 높여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4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부안군은 최근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은 총 88억 6000만원 규모로 현금거래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 축종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사업은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4월 5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 농가별 사육두수, 대출잔액, 지원한도 등을 검토 후 오는 4월 중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군에서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추천 통보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선정된 축산농가는 담보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된다.

군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을 통해 축산농가의 운영비 절감을 사료구매 이자비용 감면 효과를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 배정된 융자금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식 SNS 전 채널 구독자 1만명 돌파

정읍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공식 SNS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만명을 돌파하면서 시가 운영하는 SNS 전 채널 구독자 수가 모두 1만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시는 유튜브를 비롯해 총 6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 구독자 수는 유튜브 1.02만명, 페이스북 2만명, 인스타그램 1만명, 카카오톡 채널 1.74만명, 카카오톡스토리 1.13만명 등 6만 8천여명에 달한다.

특히 도내 시 단위 인구대비 구독자 비율(3월 28일 기준)은 페이스북·유튜브 1위,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

2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관광 명소, 축제 소개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으로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해오면서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벚꽃축제, 구절초축제, 물빛축제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희수 시장은 "시정 홍보에 있어서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꾸준히 기획해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